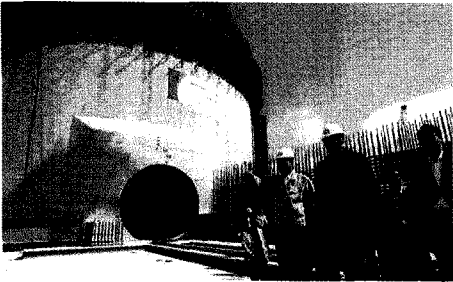


한전, UAE 원전 연말 착공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 컨소시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발전소 착공식이 연말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달 5일 한전의 'UAE 원전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오는 12월까지 원전 건설 관련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후 연말쯤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한전 컨소시엄은 내년 3월까지 부지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2012년 4월 기초굴착을 시작, 그해 11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키로 했다.

이어 1호기 원자로 설치는 2014년 7월, 핵연료 장전은 2016년까지 마치고 2017년 5월 1호기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전, 멕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7일 멕시코 치와와주 치와와시에서 멕시코연방전력위원회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사업을 위한 전력판매 및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멕시코 북서부 치와와주 엘치노 지역에서 433MW급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발전소의 사업권은 한국전력(56%)과 삼성물산(34%), 멕시코 테친트(10%) 컨소시엄이 25년 동안 갖는다. 이번 계약 체결로 한전은 앞으로 25년간 2억3000만달러의 사업수익을 확보했다.

발전소는 2011년 1월초 착공에 들어가 2013년 5월31일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기술원 茶山기술상 대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기술원(원장 이주상)이 지난달 14일 제19회 다산(茶山)기술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산기술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기술 중시 사상을 계승, 기술개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술 및 연구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원자력발전기술원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신형경

수로 APR1400을 상용화해 전 세계에 알린 공로와 방사성폐기물 유리화공정 개발 및 상용화, 원전 안전운영 및 정비기술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원자력발전기술원은 앞으로 APR1400의 개량형인 APR+ 기술개발과 원전 설계 핵심코드 개발, 그리고 국내 운영 중인 20기 원자력발전소의 홈다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중소 협력업체와 기술 융·복합 워크숍

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지난달 10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중소 협력업체 24곳 관계자들과 이업종 중소기업협의회 '기술 융·복합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행



사에서 남동발전은 중소기업 1대1 지원을 위한 동반자 결연식, 최우수 협력사 명패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한국중부발전, 수도권 최대 태양광발전소 착공

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총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울태양광 발전소는 설비용량 1.3MW 규모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이 발전소는 일일 4370kWh, 연간 약 160만k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약 520가구가 1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친환경 방식의 전력 생산을 통해 매년 약 989톤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것으로 중부발전은 예상했다.

한국서부발전, 혁신추진전략 워크숍



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은 지난달 10~11일 양일간 양평 소재 한화 리조트에서 경영진 및 전 처·실장, 사업소장 등 혁신리더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목표이익 1900억원 달성을 위한 혁신추진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6월에 열린 1차 혁신추진워크숍에서 도출된 TDR(Tear Down & Redesign) 과제와 서부발전의 중기전략방향인 Focus(몰입) & Align(정렬) 2013전략에 대한 성과 보고와 점검으로 이뤄졌다.

또한 혁신전문가 60여명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한 Cross meeting 방식의 워크숍 진행으로 몰입도를 높이고, CEO 및 경영진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코칭 리더십을 구현하여 핵심 현안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한국남부발전-한국광해관리공단, 폐기물 자원화 앞장선다



- 발전소 석탄회 광해방지에 활용 공동연구 기술협약 체결

남부발전(사장 남호기)과 광해관리공단은 지난달 1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광해방지에 석탄회를 활용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은 현재 남부발전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저열량탄 발전소인 삼척그린파워발전소의 석탄회를 광해방지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폐기물 자원화로 녹색에너지를 창출해 양사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MOU를 계기로 광해방지사업에 석탄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경우 석탄회의 안정적 처리와 함께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美발전시장 공략

- 바이오매스 3곳·가스 1곳 인수

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발전시장에 진출한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0일 미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3곳과 가스발전소 1곳을 인수하기로 했으며, 4곳의 발전 용량은 시간당 총 70.8MW이다. 동서발전이 인수할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캘리포니아주의 '페어헤븐', 뉴햄프셔주의 '스프링필드'와 '화이트필드'로 발전 용량은 각각 18MW 규모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체를 열분해하거나 발효시켜 얻은 에너지원으로, 지구상에서 1년간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규모는 원유 전체 매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스발전소는 뉴욕주에 있는 '킹스플라자'로 16.88MW의 발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일본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의 미국 현지법인 MSEI가 보유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지분 100%와 가스발전소 지분 75%를 3610만 달러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한전KPS, 글로벌 컴퍼니를 향한 새로운 CI 선포



- 영문 사명 'KEPCO KPS(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로 변경

한전KPS(사장 태성은)가 지난달 15일 글로벌 컴퍼니를 지향하기 위한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한전KPS는 이 날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새 CI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CI로 변경된 본사 사옥 현판식을 가졌다.

한전KPS의 새로운 CI 제정은 One KEPCO의 일환으로 전력그룹사와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공략을 통한 글로벌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영문 사명 변경에 따라 이루어졌다.

영문 사명 변경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의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전력그룹사와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공동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한전의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한전KPS의 국문 사명은 기존의 '한전KPS주식회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KPS, 원자력 안전의 파수꾼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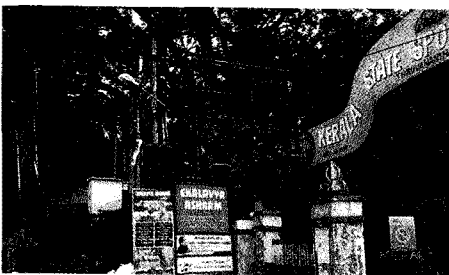
한전KPS가 국가 원자력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제16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이 지난달 1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전KPS 김용식 원자력처장이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운영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전KPS 월성제1사업소 김종오 팀장, 영광제1사업소 오성록 팀장 등 2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그리고 울진제3사업소 박동문 팀장, 영광제3사업소 이인희 차장, 신월성시운전사업소 김상태 과장, 고리제2사업소 장병섭 차장 등 4명이 Best Engineer상을 수상함으로써 국가 원자력 안전 확보와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전KDN, 스마트 그리드 기술 수출



- 600억원 규모의 인도 전력 현대화 사업 수주

한전KDN(사장 전도봉)이 인도에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수출한다.

한전KDN은 지난달 14일 인도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25개 주가 발주한 '인도 전력 현대화 사업(R-APDRP)'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해 케랄라주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이 사업에는 한전KDN과 포스코ICT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수주한 인도 전력 현대화 사업은 모두 3단계로 이뤄지며 한전KDN은 600억원 규모의 1단계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전KDN은 내년 말까지 스마트그리드의 초석인 전력IT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ERP시스템(검침, 요금, 수납, 콜센터 시스템 등) ▶원격 자동검침(AMR) ▶전력판매 시스템 ▶GIS시스템(고객 정보 고도화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

두산중공업, 2000억원 규모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수주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은 지난달 12일 이스라엘전력공사(IEC)와 2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탈황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인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57만kW급 오롯라빈(Orot Rabin) 5·6호기와 루텐버그(Rutenberg) 1·2호기 등 화력발전소 4기에 탈황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설비를 창원공장에서 설계·제작해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탈황설비는 습식 방식으로 배기가스에 수분을 함유한 석회석을 접촉시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원리다. 이산화황을 100% 가까이 제거할 수 있어 전 세계 발전소의 70% 이상이 채택하고 있다.

LS산전, 부산에 고압직류송전 생산기지



LS산전(사장 구자균)은 지난달 14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에서 구자균 사장을 비롯해 부산시, 건설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최초 HVDC 생산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HVDC 부산공장은 1만2000여㎡ 부지에 건축 연면적 5692㎡(1721.8평),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된다.

HVDC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총 10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HVDC 전용공장과 전용시험 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LS산전은 HVDC 공장을 기반으로, 80kV급부터 단계적으로 250kV급, 500kV급 기술을 확보해, ABB와 지멘스, 알스툼 등 3사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세계 HVDC 시장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LS산전은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HVDC 분야를 그린 비즈니스 분야의 확고한 축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슈나이더, 친환경 원유 생산 하역설비 구축 참여



슈나이더 일렉트릭(사장 에릭 리제)이 세계 5대 오일 메이저사인 프랑스 토탈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생산 하역설비(FPSO)를 구축하는 파즈플로(Pazflor) 프로젝트의 전원 및 제어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원유 추출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석유층에 가깝게 해저에 전기를 배전하고, 부품의 간편한 재사용과 소형 기반 인프라를 통해 심해 원유 개발에 적합한 친환경 기술을 제공한다. 특히, 감시 및 제어 솔루션을 통해 경미한 사고도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과 함께 주요 전력이 필요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